

“임인년, 오겜 열풍 Again”... 25편 이상 K-콘텐츠 승부수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기자간담회

‘택배기사’ 등 신작 라인업 공개
웹툰 원작·리메이크 등 구성 다채
“韓 스토리텔링, 세계 수출 박차”

넷플릭스는 올해 지난해에 비해 10편이나 늘어난 25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공개해 올 한해 글로벌 스크린을 화려하게 장식할 계획이다.

넷플릭스가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 2022년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강동한 VP(Vice President)는 “넷플릭스에게 한국 콘텐츠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카테고리가 됐다”며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이 한국 콘텐츠에 관심 가지고 투자 금액을 늘리는 만큼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대중 문화의 중심에 섰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넷플릭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5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 신작 라인업 공개했다. /넷플릭스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130여 편 이상의 한국 작품이 넷플릭스를 타고 해외에 처음 소개됐다.

강 VP는 “지난해 넷플릭스에게는 꿈만 같던 한 해였다”며 “작년에 두드러지게 사랑을 받은 오징어게임은 말할 것도 없이 지옥, 마이네임, 고요의 바다 등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한국 콘텐츠 시청에 할애한 시간은 지난해 말 기준으

로 지난 2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공개한 콘텐츠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시청한 〈오징어 게임〉의 경우, 시청 시간의 약 95%가 해외에서 발생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 프랑스, 터키 등 94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콘텐츠는 지난해 말 공개한 〈지옥〉과 〈고요의 바다〉를 통해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두 작품은 글로벌 T

OP 10 TV(비영어) 부문 1위를 달성해 ‘웰메이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였다. 이는 한국 작품들이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뿌리내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넷플릭스는 올해에도 25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공개해 넷플릭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소재와 시청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만족시킬 완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우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한 고등학교의 극한 상황을 다룬 〈지금 우리 학교는〉가 오는 28일 공개된다. 이를 시작으로 소년 형사 합의부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소년범죄에 대한 이야기인 〈소년심판〉을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의 연기로 만나볼 수 있다. 역대급 스케일의 범죄극으로 전 세계에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킨 화제작 ‘종이의 집’의 리메이크인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도 올해 라인업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하일권작가의 웹툰 원작인 〈안나라수마나라〉, 〈인간수업〉으로 뜨거운 호평을 모은 진한세 작가의 신작

〈글리치〉, 조의석 감독과 김우빈의 재회가 이목을 끄는 〈택배기사〉 등이 올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모탈센스〉, 〈카터〉, 〈서울대작전〉, 〈정이〉, 〈20세기 소녀〉 등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한 한국 영화의 즐거움까지 맛볼 수 있다.

강 VP는 “한국 팬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이야기를 선보이고자 국내 창작 생태계와 장기적으로 협업하며 투자를 늘려온 결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은 작품이 다수 탄생했다”며 “넷플릭스는 창작자들과 함께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 190개국으로 수출하는 여정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VP는 넷플릭스 요금 인상에 대해 “2016년 서비스를 런칭한 후 첫 번째 요금 인상으로 저희 같은 기업에게는 힘든 결정이었다”며 “베이지 요금은 올리지 않았으며, 많은 콘텐츠를 제작 하면서 그만큼 밸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롯데렌탈, 비대면 서비스 본궤도 탄소감축·고객편의 일거양득 ‘쾌재’

전자계약, 법인으로 대상 확대
단기렌탈 ‘스마트키박스’ 서비스

롯데렌탈이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19일 롯데렌탈에 따르면 회사는 개인 고객 대상 전자계약 서비스를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부터 시행하였으며, 다년간의 비대면 서비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에는 법인 고객 대상 전자계약 서비스를 오픈했다.

롯데렌탈은 전자계약 서비스의 실행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고객뿐만 아니라 롯데렌탈 영업 직원의 안전 확보에도 직결되어 있어 서비스의 지속 확대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



비대면 차량 무인 대여 반납 지원 서비스 ‘스마트 키박스’ /롯데렌탈

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김경우 롯데렌탈 영업본부장은 “계약 1건당 50장의 A4용지를 사용하는데 3년간 B2C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하여 총 5만7000건의 계약이 발생되어 약 4.9톤의 탄소를 절감했다”며 “법인 고객

대상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매년 추가적으로 2.1톤의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단기렌탈 지점 영업시간 이외에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스마트키박스’라는 연중 무휴 비대면 서비스를 오픈하여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키박스는 전국 21개 지점에서 차량 대여부터 반납까지 100% 비대면으로 연중 무휴로 24시간 진행되며 이용고객에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 제공 프로모션을 오는 2월까지 진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T, ‘Add Shop’ 론칭... 서울·광주 매장 오픈

KT는 제휴상품 체험 매장의 본격 확대를 위해 신규 브랜드 ‘KT Add Shop’를 론칭하고 신규 매장 2곳을 서울 선릉과 광주 상무에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델들이 KT Add Shop에서 소상공인 관련 서비스와 제휴 상품들을 체험하고 있다. /KT

에쓰오일-아람코, 에너지 신기술 개발 맞손

에쓰오일(S-OIL)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석유화학 신기술을 비롯한 대체 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4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쓰오일과 사우디 아람코는 18일(현지시간) 리야드 리즈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MOU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쓰오일은 사우디의 경쟁력 있는 블루 수소-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활

용하기 위한 기회 발굴과 연구·개발(R&D)에도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 관련 신기술, 탄소 중립 연료인 이-퓨얼(e-Fuel),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신기술과 탈탄소 관련 사업 분야의 국내 벤처 기업에 공동 투자하고, 이를 통한 관련 신기술 확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최태원,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우수작 사업화 추진

〈SK그룹·대한상의 회장〉

이봉주씨 ‘사소한 통화’ 대상 사업화 진행 개인·기업 모집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기획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우수작이 사업화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의 대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4명의 출품자에게 상패를 증정하는 자리를 갖고, 우수작을 사업화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상을 거머쥔 ‘사소한 통화’의 이봉주씨와 ‘코리아 게임’의 윤서영양, ‘우리 동네 병원’의 김진현씨, ‘폐업도 창업처럼’의 백병기씨 등이 최 회

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대한상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의 핵심은 대상을 뽑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아이디어를 기업으로 바꿔 줄 기업가를 공개 모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화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우수작 TOP 10을 살펴보고, 구체화된 사업계획(아이디어 구체화, 자금계획 등)을 대한상의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심사위원회는 국가발전기여도,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아이디어의 사업화할 CEO를 뽑는다.

사업화 공모 대상은 우수작 10선에

몇 개를 더 할 예정이다. 치매 막는 10분 통화인 사소한 통화, 게임과 여행을 융합한 AR 보물찾기인 코리아게임, 야간 진료, 주말진료 시스템인 우리동네 병원, 눈물의 땀치리를 막는 폐업도 창업처럼, 종자 유니콘을 길러낼 코스쌍, 감정노동자의 비속어 필터링 서비스인 내 귀에 캔디 등 상위 10개 입선작과 방송에서 다룬 추가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발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화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격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 컨소시엄까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LGU+·지니뮤직 “호랑이띠 아티스트 찾습니다”

LG유플러스와 지니뮤직은 임인년을 맞아 올해 가장 기대되는 호랑이띠 아티스트를 선발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LG유플러스의 아이돌 전용 동영상 플랫폼인 ‘아이돌Live’ 앱과 지니뮤직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

서 진행되며, ▲직접 아티스트를 추천하는 1차 ▲최종 1등을 선발하는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양사는 최종 선발된 1등 아티스트 이름으로 사회복지기금인 ‘사랑의열매’에 1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채윤정 기자